“불상 방사선 조사, 法 강화로 어려움 많다”

문화재청 · 불교문화재硏, 불상기록화 심포지엄 개최

2010년 시작된 사업 성과 망라
방사선 통한 비파괴 검사 ‘대세’
기법 · 목재수종…연구범위 넓어
원자력안전법 강화로 조사 난맥
사찰의 특수성 고려한 협의필요





보물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사진 왼쪽)’과 X-선 촬영 합성 사진(사진 오른쪽)의 모습. 이 같은 조사를 통해 불상의 제작기법과 목재 수종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국에 산재된 불상들의 원형을 기록하는 ‘중요동산문화재(불상) 기록화 사업’이 올해로 11주년을 맞았다. 그간의 사업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와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11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원형을 찾아가는 시간, 불상 기록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그간의 사업 현황과 성과를 살피고 향후 과제를 고찰했다.

2010년부터 문화재청 주관으로 진행된 ‘중요동산문화재(불상) 기록화’ 사업은 국보 · 보물로 지정된 불상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록화를 통해 훼손 · 멸실을 대비한 불상 기초데이터를 구축하고, 안전진단을 통해 보존관리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중요동산문화재(불상) 기록화’ 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총 47건 135점의 불상 정밀기록화 조사가 진행됐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과 함께 2015년부터 해당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성과 중 눈길을 끌었던 것은 3D-CT와 X-선 검사를 활용한 문화재 조사였다. 비파괴, 비접촉이 요구되는 문화재 조사에서 3D-CT와 X-선 검사 활용은 일종의 혁신이었다.

‘불상 기록화 사업’에서 불교문화재연구소는 2018년 9월 처음으로 3D-CT와 X-선 검사를 통해 불상을 분석했다. 대상 불상은 보물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었고, 조사는 동국대 일산병원 방사선실에서 이뤄졌다. 조사를 통해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좌측 어깨와 팔 △불신 앞과 뒤 △우측 어깨와 팔 △무릎에 사용된 5개의 주부재로 구성돼 있음이 확인됐다. 불신에는 금속제 못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모든 부재는 옻이나 아교 등의 접착제를 사용했다. 정상계주, 중간계주는 나무로 조각해 접합됐으며 나발의 목재 재질은 2가지 종류가 혼재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과학적 기록화를 통한 불상 제작기법 연구’를 발표한 정지연 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은 “불상 기록화 사업은 원형이 훼손될 경우를 대비해 객관적 데이터를 생성하고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하며, 학술연구나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디지털 기록화를 비롯해 다양한 조사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X-선 또는 X-선 CT촬영을 통해 구축한 데이터는 한 번의 조사로 세 가지의 사업 목적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X-선 또는 X-선 CT촬영 조사는 고려 · 조선시대 불상들의 제작기법을 밝혀내 미술사 연구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목재 횡단면의 나이테 · 나무결을 관찰할 수 있다”면서 “X-선, 3D-CT 데이터를 활용하면 수리 복원 작업 이전에 문화재 원형과 보수 부분의 크기 위치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수리 복원의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다. 해당 조사는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조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X-선, CT 촬영 조사는 방사선을 활용하기에 제약도 적지 않다. 강화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 조사가 가능한 기관에 불상을 이운해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상 기록화 사업의 경과와 표준화 방법’을 발표한 최훈 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은 “기록화 사업 초기에는 봉안처인 사찰 전각에서 조사가 가능했지만, 이후 강화된 원자력보호법에 따라 현장 촬영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방사선 투과가 가능한 장소로 불상을 이운해 촬영하는 방법이 대안이지만 예배대상으로 봉안된 불상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녹록하지 않은 작업”이라고 조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밖에도 방사선 조사가 가능한 병원의 기기가 불상에 비해 작게 설정돼 전체 이미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경우도 있다는 게 최 팀장의 설명이다.

향후 과제로 최 팀장은 “원자력안전법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불상이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문화재인 점과 사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앞으로 진행되는 기록화 사업에서는 방사선 조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별처럼 많았던 경주 사찰을 만난다

국립경주박물관 신라미술관 ‘불교사원실’ 신설…24일 개관

황룡사 찰주본기 등 530점 공개
분황사 등 경주 출토 유물 망라
지진 대비한 면진 진열장 설치해
저반사 유리로 관람 환경 개선도



경주 황룡사 사리기 외함. 표면에 ‘찰주본기’가 새겨져 있다. 이는 7세기 탑 건립과 9세기 중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라벌(現 경주)에는 17만 8936호가 모두 기와집으로 줄지어 있었는데 별을 뿌려 놓은 듯 절이 많았고, 기러기 줄 지어 가듯 탑이 많았다.”

〈삼국유사〉에서 일연 스님이 묘사한 신라시대 경주의 모습이다. 남산을 중심으로 줄 지어진 사찰과 탑을 가진 경주의 모습은 찬연했던 신라시대의 불심을 그대로 보여준다. 별처럼 많았던 신라 경주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전시실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최선주)은 11월 24일 새로운 전시실인 ‘불교사원실’을 개관하고 대중들에게 선보였다.

‘불교사원실’은 신라미술관 2층에 있던 기존 황룡사실을 공간과 내용 면에서 크게 확장한 것으로 신라 최초 사찰인 흥륜사부터 9~10세기 사리기까지 아우르는 풍성한 이야기를 담았다. 또한 지진에 대비한 면진 진열장 설치, 전면 저반사 유리 도입으로 문화재 안전과 전시 관람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신라 미술관 중층의 환경을 개선하고 2층 계단홀 공간을 전시의 일부로 편입해 관람객들이 중층을 거쳐 2층 불교사원실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전시실은 신라 왕경과 지방의 주요 사찰 유적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 탑 장식, 불상, 기와 등을 활용해 신라 사찰의 역사 전반을 조망할 수 있게 구성됐다.

특히, 황룡사 구층목탑과 분황사 모전석탑에서 발견된 다종다양한 사리기와 공양품은 불교 공인 이후 사찰에 투입된 왕실의 막대한 정치 · 경제적 지원을 엿볼 수 있다. 황룡사 사리기 외함 표면에 새겨진 ‘찰주본기(刹柱本記)’는 7세기의 탑 건립과 9세기 중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탑을 둘러싼 다양한 역사적 상황을 전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삼국통일 직후의 대표 사찰인 사천왕사 ‘녹유신장상벽전’과 감은사 서탑 사리장엄구에서 볼 수 있는 한층 정교해진 도상과 높은 조형미를 통해 통일이라는 대업을 달성한 신라의 정치, 종교, 예술적 역량을 느낄 수 있다.

통일신라 후반기의 봉화 서동리, 창녕 술정리, 함양 승안사, 포항 법광사의 사리기는 당시 지방 사찰에서 전개된 불교 신앙의 일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유행이 가져온 사리장엄구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이외에 신라의 최초 사찰인 흥륜사를 비롯한 주요 사찰의 기와와 전돌 180여 점이 전시된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이번 전시실 신설은 2018년 이후 국립경주박물관이 진행해 온 전시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관람객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신라의 사찰문화를 접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관람객과의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거장 장욱진 불교 작품 한자리에

장욱진문화재단, 12월 15일 ‘장욱진 발원’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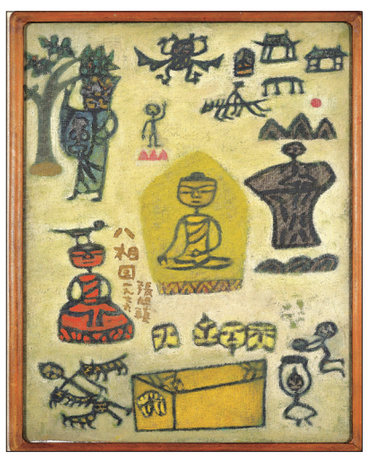
금강경 독송회 보시 작품들
올해 6월 전량 재단 재기부
110점 중 전시서 44점 공개

이중섭, 김환기 등과 함께 한국현대미술사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장욱진은 불교와 깊은 인연을 가진 작가다. 장욱진은 불심이 깊은 가정환경에서 자랐으며, 사춘기에 만난 스님을 통해 인생관과 예술관에 영향을 갖게 된다.

자신의 불심을 작품세계에 투영시켰던 장욱진의 불교 주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장욱진미술문화재단(이사장 김동건)은 12월 15일까지 장욱진 가옥 양관 1층 전시실을 개방하고 ‘장욱진의 발원’전을 개최한다. 재단이 전시실 개방하고 전시회를 여는 것은 2년만이다.

이번 전시회는 장욱진의 부인인 이순경 여사가 오랫동안 참여한 ‘금강경 독송회’ 수행도량 여시관(如是觀) 법당에 틈틈이 보시했던 작품 110점을 김강유 · 이광옥 씨가 지난 6월 전량 기증 의사를 밝히면서 이뤄졌다. 기증자인 김강유 · 이광옥 씨는 동국대 총장을 지낸 백성욱(1897~1981) 박사의 제자로 이 여사의 오랜 선생님이기도 하다.



장욱진의 유일한 불교 주제 유화 작품인 ‘팔상도(1976)’

전시는 기증된 작품 중 불교적 주제의 유화와 대중에게 처음 공개되는 먹그림, 매직그림, 도자기화 등 44점이 선보인다. 불교적 주제를 다룬 유일한 유화인 팔상도(1976년 作)와 진진묘(좌상)(1973년 作)는 주말에만 공개된다.

신성민 기자

울산 태화사지 십이지사리탑 새 조명

태화문화진흥원 12월 3일 제1회 학술대회

(사)태화문화진흥원(이사장 산옹)은 12월 3일 오후 2시 울산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울산 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주제로 제1회 학술대회를 연다.



보물 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 울산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울산 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은 태화사터에 묻혀 있던 것을 1962년에 발굴해 일시적으로 부산으로 옮겼다가, 다시 울산의 학성공원으로 옮겨왔고, 현재는 울산박물관으로 이전해 보존하고 있다.

‘울산 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이 일반적인 사리탑들과 다른 것은 널따란 바닥돌 위에 종 모양의 몸돌이 놓인 간단한 구조를 가진 것이다. 또한 통일신라시대에 왕릉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조각된 12지상들이 사리탑에 새겨지는 것도 드문 예다. 이 같은 이유로 ‘울산 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은 1966년 보물로 지정됐다.

이날 학술대회는 박태원 영산대 화쟁연구소장의 ‘신라시대 울산불교’ 기조강연으로 시작되며 △자장과 울산 태화사의 창건(남무희, 국민대) △태화사지 위치에 대한 비판적 검토(홍병화, 건축사사무소 상상재) △십이지사리탑의 양식과 제작 시기(홍대한, 국립농업박물관) △십이지사리탑의 역정과 활용방안(한욱빈, 한국건축안전센터) 등이 발표된다.

태화문화진흥원 이사장 산옹 스님은 “태화문화진흥원 개원 기념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게 됐다”면서 “학술대회를 통해 울산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와 활용방안이 모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 보물 지정

문화재청, 11월 23일 공고

통일신라시기 당간지주 중 유일한 귀부형 간대석이 보존된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경주 구황동 당간지주’를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라는 이름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 지정했다”고 11월 23일 밝혔다.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경주 구황동 당간지주는 분황사 입구 남쪽과 황룡사 사이에 세워진 것으로 신라 시대 분황사 가람의 규모와 배치 등을 고려하면 분황사에서 활용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재 문화재명을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로 변경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당간지주는 당을 걸기 위한 당간을 고정하는 지지체로 통일신라 초기부터 사찰의 입구에 본격적으로 세워진 조형물이다.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는 일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 지정된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

강점기에 촬영된 사진 속 모양과 현재의 모습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 외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 지주 사이에 세웠던 당간은 남아있지 않지만, 조영 기법과 양식이 같은 두 지주와 당간을 받쳤던 귀부형 간대석이 원위치로 보이는 곳에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다. 귀부형의 간대석은 남아있는 통일신라 당간지주 중에서는 유일하다.

좌우 두 당간지주는 같은 조영 기법과 양식, 가공 수법을 보인다. 전체적인 형태는 사각 기둥모양인데, 상부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좁아지고 있다. 정상부는 안쪽 면에서 바깥 면으로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도록 가공했다. 당간지주의 안쪽 면에서 바깥 면으로 관통하는 원형 간공(竿孔, 지름 15cm)은 상중하 3곳에 마련돼 당간을 고정토록 했다. 이처럼 당간지주의 상중하 3곳에 간공을 마련하여 당간을 고정하는 수법은 통일신라의 당간지주에서 많이 적용된 기법이다.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는 경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요 사찰의 당간지주와 유사한 조영 기법과 양식을 보이고, 현존하는 통일신라 당간지주 중에서 유일하게 귀부형 간대석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유사 당간지주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동아시아 불자들 시대 인식 조명

금강대, 첫 온라인 국제세미나

한중일 불교학자들이 동아시아 불교도의 시대 인식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된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고승덕)은 12월 3일 교내 국제회의실에서 ‘동아시아 불교도들의 시대인식’을 주제로 제1회 온라인 국제학술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선시대의 배불정책과 호국불교 사례연구(김응철, 중앙승가대) △대한불교 천태종의 애국불교와 시대정신(광도 스님, 금강대) △불교와 고대 중국국가들(광싱, 홍콩대) △불교에서 수행도의 변천(미노와 겐료, 동경대) 등이 발표된다. 사회와 통역은 고승덕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장이 맡았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술대회는 줌에 접속해 회의 아이디 ‘638 610 2061’과 비밀번호 ‘ggu123’을 입력하면 된다.

신성민 기자